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

A Study on the Suicidal Attempt Experiences of the Rural Elderly

발표자: 정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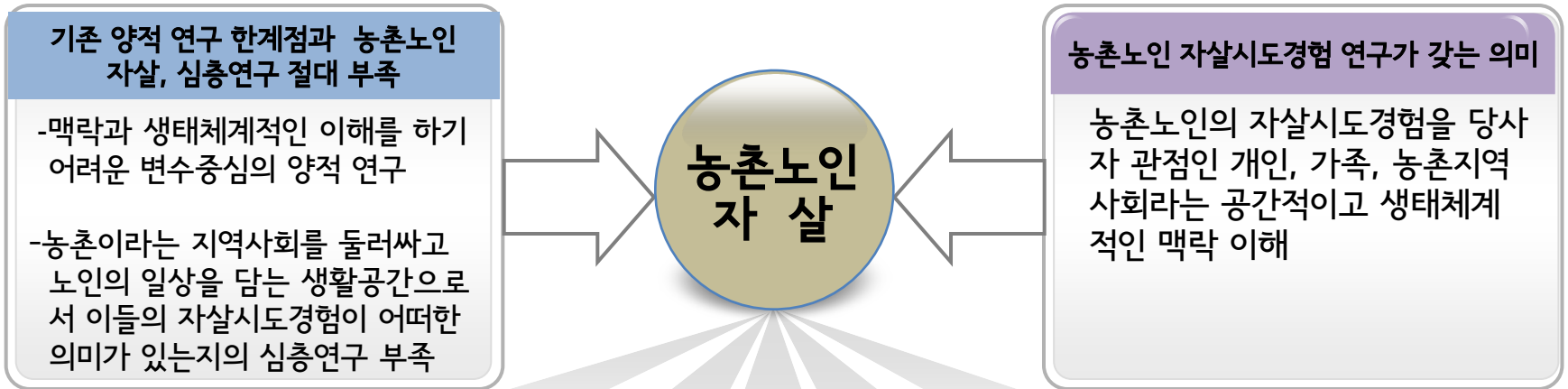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SSK 전임연구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 연구의 필요성

“왜, 농촌노인 자살시도경험 연구가 필요한가?”



농촌노인 자살

• 도시지역 (區단위, 인구 10만명당 30.09명) < 농촌지역 (郡단위, 인구 10만명당 46.97명) 약 1.5배 높은 자살률 (통계청, 2013)

도시보다 심각한 농촌노인 자살률

• 도시노인 < 농촌노인 고령비율 (1995년: 16.2% (785천명) → 2012: 35.6% (1,037천명), 독거 및 기초생활비율 (통계청, 2012)

인구경제학적 취약성

농촌경제구조 취약성

- 1차산업 위주 농촌경제구조 : 높은 부채, 경제스트레스, 미흡한 노후준비 등 (채은희 외, 2006; 김영주, 2008; 홍봉수, 2010; 김은정, 2011; 이상영 외, 2012; 박지영, 2016)

농촌지역 생활 문화특성과 변화

-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부락, 공동체 중심의 전통 농촌지역사회 기반 생활문화 → 노인고립 막고 긍정적 기능
- 퇴직 등 귀농인구 증가 (한혜경, 김주현, 2005; 박지영, 2016)

전문자원 & 복지서비스 열악성

- 현저히 부족한 전문 자원, 복지서비스 열악성으로 인한 자살문제대처 시스템 취약 → 노인 문제 + 농촌지역적 문제 이중경험 (김인, 2006; 채은희 외, 2006; 김은정, 201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연구목적

- 농촌 지역사회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생존한 노인들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한가를 이해
- 농촌 지역사회실정을 고려한 노인자살예방과 개입전략, 정책 모색

■ 연구문제: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은 어떠한가?

II . 이론적 배경

1. 노인자살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농촌노인의 자살특성
3. 노인자살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1. 노인자살에 대한 이론적 관점

노인자살 이론적 관점들

사회학적 관점

1

-자살현장에 대한 사회적 의미로 분석한 뒤르케임

-자살이라는 개인적 현상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석
-한계: 주로 자살 원인을 개인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2

-자살을 고려하는 개인은 자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홀로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심한 외로움이나 자기비하, 살인적 분노를 일으켜 자살행동

-한계: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불가분한 연결 관계 간과

심리학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3

-노인의 자살을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
-다양한 환경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두기 때문에 모든 노인자살이론에 대한 관점 포괄

-한국 사회는 자살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강함.

-유교, 샤머니즘, 부정적인 정서 속에 쌓인 화(火): 농촌지역사회의 노인자살을 이해하는데 유용

4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

- *인용출처 1. 사회학적 관점: 김형수, 2002; 신민섭, 2003; 최원기, 2004; 김정진 외, 2008; 임미영, 2010; 홍시명, 2014; Pickering et al., 2000 등
2. 심리학적 관점: 신민섭, 1993; 나소정, 2006; 송재룡, 2008; 임미영, 2010, 2011; 하상훈, 2010; 김기태 외, 2011
3. 생태체계적 관점: 배지연, 2004; 홍시명, 2014 등
4.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 김정진 외, 2008; 윤명숙, 김가득, 2008; 천정환, 2009; 이영경, 2014; Jaques, 2000; Sun, Long, Huang, 2008; Motohashi, Yamaji, & Kaneko, 2008 등

2. 농촌노인의 자살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이현경 외, 2011),
- 성별: 주로 **남성이 자살위험이 높다고** 한 가운데(김윤정 외, 2012), **여성이 자살 위험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김정진 외, 2012)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자살비율이 높게** 나타남(Yip et al., 2006; Sauvaget et al., 2009)
- **남성사별자나 이혼자들 > 여성사별자나 이혼자에 비해 자살위험** (남윤영, 2005; 노성원, 2011; 김정진 외, 2012)

신체 · 정신건강 요인

- **단연 우울이 가장 많은 자살위험요인**(양순미 외, 2006; 이은석 외, 2009; 김윤정 외, 2012; 김정진 외, 2012; 최희영 외, 2014; Judd et al., 2006)
- **개인력 및 가족력을 가진 만성음주문제 등의 정신건강문제의 요인** (김정진 외, 2012; Judd et al, 2006)
- **신체적 활동**(이은석 외, 2009; 최희영 외, 2014; Manoranjitham et al., 2010)

사회관계적 요인

- 농촌노인들에게 사회적 관계요인 중 가족 및 친구, 이웃 등은 중요한 의미. **국내에서는 소수연구 진행**
- 가족부양이나 지지 등의 **가족관계신념** (양순미 외, 2006; 최희영 외, 2014), **가족결속도** (김윤정 외, 2012)가 좋을수록 자살위험 낮음.
- **외국, 사회적 관계 요인 폭넓게 진행** : 중국의 경우,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소외감, 고립감, 빈둥지 경험(Li et al., 2009; Ojagbemi et al., 2013). **가정불화 포함한 심각한 대인 관계 문제**(Zhang et al., 2004) 경험

지역적 요인

- **낮은 사회 · 경제적인 측면,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 (심영희, 1986; 유정균, 2008)
- **낮은 교육수준, 타 직업에 비해 농업종사자**
- **미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중국, 타이완, 중국, 인도 등 등 농촌지역사회에 기반한 복합적 요인 자살가능성 요인 도** 출해낸 연구결과들 보고 (Ono et al., 2001; Oyama et al., 2004, 2005; Zhang et al., 2004; Kolves et al, 2012; Chowdhury et al., 2013; Hirsh & Cukrowicz, 2014 등)
-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문화, 공중보건 · 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농촌남성 중심의 문화, 지리적인 고립성, 농업적/농업정부정책요인 등**

2. 농촌노인의 자살특성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시사점]

- 농촌 지역사회가 갖는 열악성과 다양한 지역적인 특성들이 노인자살위험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도출요인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살을 계획하게 되고 시도했는지 자살을 경험한 노인 당사자들의 주관적 이해 제공은 하지 못하는 한계
- 농촌노인자살문제는 농촌이라는 '공간'과 '삶'의 맥락에서 생생한 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 → 농촌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질적인 예방과 개입전략 마련될 것이라는 점 시사

3. 노인자살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 농촌자살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국·내외 모두 소수 연구진행.
농촌노인 자살경험 다룬 연구는 심리적 부검 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노인자살경험 다루어진 주제: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 자살시도, 행동을 하는 연속적인 전 과정을 다루거나 자살 시도 전과 후, 자살행동, 극복 등의 **특정단계의 경험의 의미** 다룸.
 - 생존자의 자살경험(박지영, 2007),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권중돈 외, 2011), 자살시도경험(임미영, 2010; 이광숙 외, 2015, Croker et al., 2006), 자살시도 전과 경험자살시도 후의 경험(임미영 외, 2010), 자살극복경험(조계화 외, 2008; 임미영 외, 2011), 김유진, 2013), 자살시도 노인의 삶의 의미(Moore, 1997), 심리적 부검(최명민 외, 2015) 등
- 발견되는 노인자살경험
 - ☞ 생물학적 ·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 존재론적 · 지역적 · 생애주기적인 **복잡한 경험**
 - ☞ 가족의 지지 결여, 지인들과의 고립과 소외 등의 주요 **사회관계 문제**

III. 연구방법 및 과정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적용
2. 연구참여자의 선정방법
3. 자료수집과정

1. Giorgi의 현상학 연구방법 적용

Giorgi
현상학

1

본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접근의 유용성

1.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의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의 구조 밝히고자 함
2. 시간적 맥락에 따라 개인의 상황적 독특성과 개개인의 공통경험을 통합하여 살펴볼 수 있음

2

현상학과 사회복지학의 지향 가치와 기본철학

1. 현상학은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간과 지각의場に 들어감으로써 이해 지향
2. '농촌노인이 있는 그 곳 자체에서' '그가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2. 연구참여자의 선정방법

- 표본추출의 적절성, 농촌노인의 자살경험에 대한 내용 충분히 담기 위해
- 의도적으로 다음의 3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연구참여자 선정

[조건 1]

자살경험한 시점이 **65세 이후**로, 최초 면담 일시로부터 **최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남·녀 농촌노인

[조건 2]

자살시도 이전, 치매, 우울 등 **극심한 정신증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시도 후**에도 이러한 정신증상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가진 경우 **제외**

[조건 3]

해당 농촌지역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토착민**, 혹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 농촌지역에서 살아오고 있는 자 (***농촌**: 농촌지역 특성 반영 할 수 있는 '면', '리' 단위 중심의 지역)

[조건 4]

조건 1-3을 충족한 자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노인자신**은 물론 **가족 등의 보호자가 동의**하고 자신의 자살경험을 본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공유하기를 **자발적으로 수락하는 자**

3. 자료수집과정

[연구참여자 소개]

: 자살시도한 경험이 최초 면담일로부터 최대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농촌노인 5명

[자료수집기간]

: 2016년 4월 26일 - 2016년 7월 5일까지 심층 인터뷰 진행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농촌노인 자살시도경험의 구성요소
3. 농촌노인 자살시도경험의 일반적 구조
4.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에 나타난 생태체계적 구조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 참여자1 | 참여자2 | 참여자3 | 참여자4 | 참여자5 |
|------------|-----------------|------------------------|---------|-------------------------------|---------|
| 성별 | 여 | 남 | 여 | 여 | 남 |
| 연령 | 만78세 | 만75세 | 만77세 | 만82세 | 만78세 |
| 학력 | 초졸 | 대학중퇴 | 무학 | 무학 | 초졸 |
| 종교 | 무교 | 천주교 | 기독교 | 무교 | 무교 |
| 가족형태 | 독거 | 부부노인 | 독거 | 부부노인 (남편: 치매) | 독거 |
| 거주기간 | 60년 | 17년 | 58년 | 63년 | 78년 |
| 자살 시도경험 | 74세(1회) | 60대후반(3회) 70대초반(2회) | 77세(1회) | 50대(1회) 60대(1회) 78세(1회) | 74세(1회) |
| 자살 시도방법 | 수면제 | 목맴 | 수면제 | 농약(2회)/ 수면제(1) | 농약 |
| 가족 자살력 | 남편음독 자살(41세) | - | - | - | - |
| 인터뷰 횟수 | 3회 | 5회 | 3회 | 4회 | 3회 |

2. 농촌노인 자살시도경험의 구성요소

- 연구도출 결과, 6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 58개의 의미단위 요약으로 나타남.
 - [도출된 구성요소]: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 , <삶의 좌절감과 한계에 다다름>,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 <짊어질 명에와 잡은 희망으로 아슬아슬 살아감>인 6가지로 나타남.

1.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

가. 휘몰아쳐온 시련들

- 이제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모진 고난 속에 삶이 지쳐감': 모진 시집살이, 고된 농사일, 시부모의 수발과 임종 뒷바라지, 음주와 폭력, 학대 등
- '낮은 농사수입'으로 산전수전 겪은 '경제적 어려움'
-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배우자/아들의 돌연사와 자살)'과 '자식의 사업몰락' 등으로 인한 '굴곡과 상실감 속에 짓눌린 인생'

시집살이가 아니라,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지 뭐. 완전히 짐승이지. 시어머니 서른 여섯, 우리 할아버지는 스무살, 나는 열아홉... 시집오자마자 지금까지 손찌검을... 그 때부터 그런거지. 시어머니가 수틀리면은 머리채 감아줘. 내 머리채를 감아주고 때려.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시집을 와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많이 먹은 거여. 농촌에서 일을 하니까지는 그냥 막걸리를 그 전에는 집에서 해가지고들 그렇게 먹었잖아. 막걸리 해가지고 먹으니깐 맨날 술로다가 살은 거야. 여태까지 평생을... 술도 점점 더 먹고, 점점 더 폭력도 심하고 그러니까.... 폭력도 얼마나 쓰는 지 알아? 술만 먹으면 그냥 폭력이야. 무조건 폭력이야. 말릴 수도 없고 자식들도 그렇게 때려. 이런데도 인간구실 하며 산다고 산 거 생각하면 내 처지가 참...비참한 거여. (참여자4)

시부모 없는 집에 시집와서 시댁 식구들 눈칫밥 얻어먹으며 주는 설움은... 사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그래가지고. 진짜 내 정신이 아니지요. 그러다 마흔 다섯에 농약 먹고 죽은 남편 보내놓고 혼자 되어 혼자 사형제를 농토 지키시면서 농사지으며... 자식들 공부다 다 시키고... 경제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었죠. 내 몸 생각하지 않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은 몸이 다 고장 나서 못하지만 엄청 일 했어요. (참여자1)

나. 커커이 쌓이고 쌓인 한

- 가족과 외부로부터 닥쳐온 험난한 '긴 시련의 세월 속에 상처받은 희생양'
- 쌓이고 쌓인 한은 가슴 속에 '응어리'로 깊어짐
- 가족들과 친족, 마을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는 '원망과 분함'으로 가득차게 됨

집안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농약 먹고 그렇게 갔다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뭐 그런 일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못 돼서 죽었다 하고 이제 집안에서도 그런 원망하고...나를 그렇게 집안에서 그랬어요. 진짜 하늘을 보고 맹세해도 난 남편한테 잘못된 거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무 너무 충격이죠. 자존심이 몽개지는 거죠.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남들한테 내가 진짜 못된 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실컷 때려도 분이 안 풀릴 거 같아...장장 내가 여든이 다 되어가도록 이런 욕을 먹어 왔어요. (참여자1)

그 때인 가슴이 뚫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이제, 있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다들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고. 애잔한 마음.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고.. 뭐 목소리 한 번 들어볼 수 없고 그래요... 슬프지요. 죽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게... 사무치지요, 가슴 속에 깊이... (참여자2)

다. 인정받지 못한 채 외딴 섬에 살아감

- 가족조차 아무도 몰라주는 '외톨이 신세'로 외롭게 살아옴
- 힘겨운 삶 속에서 '업신여기고 소외시키는 동네사람들'
- 텃새부리는 토착민들이 주는 서러움
- 가족과 친족, 마을사람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무시와 상처로 '오랜 시간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옴'

동네사람들이 내가 이혼하고 농사도 많이 짓고 논물 보러 갈 때, 밭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돌아 댕기니... 저 나이에 농사짓는다고 자전거 타고 돌아 댕기는 거 보면 지랄한다고 그래... 이 지랄을 한다고... 뭐라는 지 알아? 내가 이혼을 하고 나니, 붙들고 사정이라도 하지 그런 속도 모르는 소릴 지껄여. 내가 때린 것도 없고... 근데, 아이 십팔!! 소문에 내가 두들겨 패서 야반도주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병어리가 와서 삼 년 있다가 말하고 가고 앓은뱅이가 여기 있다가 걸어가는 데가 여기라는 이야기야. 시골이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소문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나고 하는 게... 조심스럽지. 온갖 잡탕이 사는 데가 여기야.. (참여자5)

막 나더러 욕을 해. '저년 저기 가서 참나무 밭에 가서 어느 놈하고 만난다고.'고... 아이고.... 그리고 저 참나무 밑에 어떤 놈이 가끔씩 온다고 이려고. 쌀 퍼다가 친정 줬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나를 때리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말을 안 하니 누가 아나.... 여긴 0씨 성이 많아요. 여긴 이 0씨분들의 문중들이 많아요. 남 흥이나 보고 며느리 흥보고 이야기하는 동네 문중 사람들도 무서워서 일체 어울리질 못했어. 없는 말 하고 그러는데, 나는 싫어. 외로워도 이게 나아. (참여자3)

2. 삶의 좌절감과 한계에 다다름

가. 병투성이가 된 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옴

-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오며 '너무 빨리 찾아온 노화와 망가진 몸' 경험
- '돌보지 않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뒤늦은 후회'
- 허약하고 망가진 건강상태로 열악한 농촌에 살아가는 것은 '삶의 이중고'
- 열악한 건강상태와 농촌의 삶의 여건 속에서 '점점 죽음이 두려워짐'

맨날 병이 있어 그러는지 여름에도 추워 지금도 내복 입고 살아요.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젊어서 너무 많이 고생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젊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 타고 병원 갈라면 그리 신체가 처량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 고생 안하고 딱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한, 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보겠다고 이 고생하며 병원을 다니나... 슬픈 생각이 들어가요. (참여자4)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내가 뒷바라지하고 죽는 걸 지켰다고... 똥을 싸시면 빨아서, 저기 빨래터를 가서 빨아 가지고.... 그렇게 날 괴롭히다 갔어. 논농사도 뭐... 일꾼 두고 했었는데 그전에. 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깐 농토가 있으니 어떻게 해. 그냥 재네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와서 농사를 했었는데 농사를 못하고 죽으니 그걸 내가 그냥 했지. 그래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 아픈 곳이 많으니까 억울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죽도록 일만 해야 했나... 깊은 후회만 들어가는 거지. (참여자3)

이렇게 아픈 곳이 많으니 죽는다는 게 두려워지지요. 솔직히 두렵지요. 나는 아프지만 앓으면 발에 나가 있지. 여지껏 일을 해도 엄청 했지요. 그런데, 자꾸 몸이 아프니 앞날은 이제 어떻게 죽나....그거지... 혼자 사니까 잘 때면 두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참여자3)

나.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감

-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대책'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험
- 어려운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형편 속에 '삶이 무기력'해져 감
- 결국 '살아갈 소망과 자신이 없는 삶의 태도' 경험

살아갈 희망... 건강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삶에 애착도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한 애착도 없고.... 전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오늘 배고프니까, 챙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 원점에서 뱅글뱅글 맴 도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산거 같은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거 같아요, 내 삶은...(한숨) (참여자2)

우리 집은 겨울철에 난로 떼고 나무도 가끔 떼고 그래요. 나무는 사야 하는데,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많이도 못 떼고... 옛날 집이라서 다 허술해가지고 다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연기가 불 떼면 연기가 막 나오고 가득차고 그래요. 수리 할라니까 힘들고, 돈도 없고... 큰 아들이 잘못해서 이 집도 남의 집으로 넘어가서.... 기한이 있어요. 한 몇 년 남았어요.(한숨) 난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살은 적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애들하고 가족이 그냥 사는 거, 사는 게 목적이었었지. 그때는 열심히 살고, 뭐든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처지가 비참하고 나에 대한 그런 희망이라는 건 없지요. (참여자1)

밤에도 허전하고... TV도 틀어놓고 보다 드러눕고 그러지. 재미도 없어지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거. 희망이 없지 뭐. 나이가 많으니.... 사방이 아프니 어디 다니기도 싫고.... 혼자 있으면 드러누워 있을 때가 많아... 잠도 안 오고 몸도 아프니 별 생각이 많이 들어... 고추농사, 담배농사, 벼농사 별별 일을 하며 몸을 하도 써서 사방이 아파. 이젠 일할 의욕도 안 생겨. 예전 같으면 텃밭에 채소가 가득 찼을 텐데, 올해는 그냥 묵혔어. 몸이 아프니까 못 하겠어. 밤에는 잠도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참여자3)

다. 짐 되기 싫음

- 농사일은 물론 간단한 소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존재'로 인식
-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강한 의지
- 자신 스스로 노후와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은 생을 스스로 계획' 해나감

시골에서 그냥 내 혼자 살아가니까 매사가 지금은 나이 들어 그러는지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좀 뭐... 정말 생활비라도 좀 벌여 쓰면 좋은데, 뭐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그러니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지요. (참여자1)

우리 아버지 화장해서 나 죽을 때, 내버리고... 나는 죽으면 화장해서... 그리고... 여기 작은 조카가 있는데, 나 올해 별초만 하고 화장하면 끝나고... 자식 새끼들한테는 한 푼도 난 안 주고 안 기대... 지금까지도 이 꼴을 보이는데, 내가 무슨 낙을 본다고 자식들을 바래? 여편네도, 자식새끼들도 모두 떠나간 마당에... 누굴 보며 살어? 나 끝나고 정리하면 그만이야... (참여자5)

내가 만날 그러는 거여. 나 하나 죽으면 당신은 그때부터 그지여. 어디 가서 며느리한테 갈 생각하지 말고 요양원 같은데 갖다놓으면 당신 만날 두드려 팔려고 할텐데 될 수 있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지여, 나 없으면 그지여. 아무리 자식 있으면 뭐해 소용없어, 다....나는 아주 첨부터 그거 각오하고 사는 거여. 남은 목숨은 우리 둘이 해결하는 거야. 자식? 기대도 안 해. (참여자4)

3.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

가. 아주 오래된 각오와 준비

- 기나긴 시간 속에 수많은 시련을 겪어오며 '언제든지 자살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오래된 마음가짐' 나타남
- 각각 놓여진 상황에서 '나만의 자살방법을 탐색'하여 장기간 준비 경험
- 자신들만의 자살방법을 탐색하고 실제 '구체적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감

큰 아들 실패했을 때, 5, 6년 전에 그때 실패하고 진짜 길거리 나 앉아야 될... 이 땅도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갔을 때 나 앉아야 될 형편이래서 그때 그... 세상을 끝마치려 생각했죠. 아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했죠. (참여자1)

한, 두해 별러 가지고 그런 짓을 하겠어? 나 평생을 그러고 사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러니까... 너무 인생 끝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한, 두해 그래 가지고는 그런 일을 못 저지르지.... 하루, 이틀 육하는 심에는 못 저지르는 거여. 잠도 안 오겠다,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았지. 잠 안온다고 일부러 처방 받아서 모아놨지. 아유! 많이 안 해줘. 열 개 이상 안 해줘. 별러서 별러서 모아둔거지.... (참여자4)

계획과 준비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내가 올라갈 나무, 장소들을 탐색하는 시간들이 한 7년 동안 7군데를 찾았지요. (중략) 골짜기로 올라가면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 가지가 딱 맞아요. 여기서 이제 예행연습을 한 거예요... 자일(밭줄)을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밑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자일을 감아가지고 목에 걸고 발로 차기만 하면, 밑에 있는 돌을 발로 차면은 저쪽으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매달리는 거지. 연습할 때마다 재미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번에 갈 거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참여자2)

나. 고통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

- 자살을 통해 '힘든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동기와 준비로 시작
- '배신감과 괴씸함에 차오른 가족에 대한 복수심'의 표출로 자살계획과 준비
- 고통스런 '이 세상을 단절하는 수단'으로 선택

자살이라는 문제는요. 아무나 선뜻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를 빙자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현실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목을 맨 다든지... 그런 거는 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서도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 자살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 내 환경이 우선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참여자2)

가족이라는 작자들... 자식새끼들과 그 여편네 배신도 있었고... 나 같이 자식새끼 키워가지고는 없는 사람으로서 내 노력껏 해가지고 좋게 만들려 볼려고 노력한 건데, 결과는 숲으로 돌아가고 간 데가 없다는 거야. 나 혼자 소주 다섯 병마시고 농약을 먹었지. 이전에도 솔직히 그랄라고도 했었지.... 자식새끼들이 다 약을 올리면서 김치랑 된장 다 퍼가지고 가길래. 먼저 것도 알면서도 참았더니, 나한테 잘 살 아봐라 하면서 가더라구. 그래서 화가 나서... 인제 와서 나이 먹어 일도 못해, 헌신짝 버리듯 버리니까 약이 올라서 죽을라고 작정 한거야. (참여자5)

시어머니 죽고 나면 괜찮을까, 괜찮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 시어머니 죽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게 행동이... 그 행동이 그냥 내려오니깐... 그러니까 내가 앞길이 없는 거 같아서 살 길이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거지.... 허구 한날 술 먹고 때리는 저 인간도 안 보고, 인정머리 없는 자식새끼들도 안 보고, 이런 모습 뻔히 아는 동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한 일이구...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그만 끊어버리려고... 저 세상을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만큼 힘들까?

(참여자4)

다. 죽음에 무더짐

-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들의 '많은 죽음을 목격'
- 다양한 죽음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
- '동네 이웃의 자살방법'을 모방하며 자살준비

시방 저기 저 짝 집 아줌마 하나도 수면제 먹고 자살했지. 평소 놀러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는데... 한참을 안 오더라구...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찾아가 봤지. 혼자 집에서 약을 먹었더라구. 흔들어 깨워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 그래서 급히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다른 사람들 불러 병원에 데리고 갔지... 같이 가서 보내주고 왔지... 왜 그랬는지... 이 작은 촌에서 함께 나이 먹고 늙어가니 죽어 가는 것도 많이 보구... 지금은 내 또래가 별로 없어. (참여자3)

내가 송장염도 잘하는데, 저 불쌍한 놈은 묶어줬지. 내가 돈 있는 놈들은 사람사서 묶으라고 난 안 해... 저 놈은 돈도 없고 해서 내가 묶어줬지... 내 그렇지만..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다 (시체) 묶었어... 남의 없는 놈들 꺼 내가 묶지만, 내가 있는 놈들은 안 묶어줘... 얼마 전, 또 친구 하나가 옥수수단에 앉아서 죽었어. 자살을 했는데, 목매 죽는다면 옥수수 밭에서 목매서 죽었어. 그렇게 자살하는 팔자가 있고... 죽고 사는 것이 별 거 아니더라구... 내가 그래서 그 불쌍한 놈 묶어주며, 보내줬지... (참여자5)

나도 승수(가칭) 엄마 따라 수면제를 먹었으니, 그때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휴, 내가 승수(가칭) 엄마보다 내가 더 해. 승수 엄마만 수면제 먹고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그래도 걸어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한 발자국도 못 걸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약을 먹어서, 이렇게 이래 약 먹은 생각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아 승수(가칭) 엄마는 그래도 몇 발자국 걸어보려면 몇 발자국은 걸어 댕긴 것만 생각나더라구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거야. 한 발자국 또 옆어지고 또 자빠지고 옆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참여자1)

4.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

가. 은밀하게 후회없이 시도

- 자살시도를 위해 '홀로 된 상황을 살피며 단행'
-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까지도 '일말의 후회가 남지 않는' 심경
- 자살시도를 통해 '간절한 죽음목표를 지향하며 죽음체험'

나는 이미 약 먹은 상태인데.....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서 무슨 증세가 날까봐, 아들에게 어둡기 전에 부지런히 가라고 내가 이랬어. 죽으려고 마음 먹고 약을 먹은 건데, 아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얼른 가라고 했지... (참여자1)

절대 누구한테 뜨거운 이런 얘기 못해요. 저 혼자만의 나 혼자만의 비밀이지요. 7년 동안 혼자 준비를 해서 혼자 산에서 그런 시도를 했지만... 집사람도 모르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건 간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참여자 2)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은 차마 못하고 내가 이상하니까, 큰 아들네 집에 델고 온 거야. 이제 수면제를 먹었으니 잠도 올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며.... 큰 아들이 가자고 해서 집에 왔는데, 세상에 이런 벼름박으로 무슨 이런 딱정벌레가 아주 말도 못하게 기어 올라가더라고. 말도 못하게 형광등에 무슨 이 만한 새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형광등이 덜그덕 덜그덕 하면서 그러더라구요. 내가 말을 다 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아이고, 무슨 벼름박에 그렇게 딱정벌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기어 올라가... 그걸 치우려고 밤사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풀어서 방에 헤쳐 놨더라구. (참여자1)

나. 삶과 죽음의 끈을 잡는 이들

- 은밀히 단행하지만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
- 자살시도를 만류하기 위해 나타나나 죽은 가족, 이를 향한 효와 도리'로 멈추게 됨'
- 좁은 농촌마을에서 자신의 자살죽음이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흉흉해지는 마을 이미지가 인식'되어 자살시도 스스로 멈춤

깨어 나가지고서... 거기서 깨어나니까... 정신이 나니까, 자꾸 검사 받으러 오라고 검사 받으러 오라고 대고 검사 받으러 가자는 거여. 내 이왕 죽을라고 맘먹은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겠냐고? 안 간다고 안 갔어. 다시 살려 놓은 자식새끼들이 원망스러웠어. 죽을려고 버르고 먹었는데, 살려 놓으니... (참여자4)

나무에 올라갔을 그 순간에도 그러고 그 떠난 사람들이 뭐라고 한 마디씩 다 허는 거야... 자꾸.... 너 왜 그러니?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죽은 아내도 그렇구... 우리 아들은 아빠, 제발 좀 그것만은 멈춰... 아, 그래 그렇다. 아 맞다. 니들 말이, 니들 말을 아빠가 들어주마. 그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자식을 앞 세웠든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을 보냈던지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누구나 그럴 거 같아요. 거기까지 그 나무에 자일을 걸고 올라가는 단계까지 시행을 했다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내가 죽으면 부모에게는 불효가 되는 거고 죽은 자식에게는 추한 꼴을 보이는 거 같아... 이걸 자식에게 할 도리는 아닌거지요. 그러곤 혼자 주저 앉아 목놓아 울었어요. 이제까지 제대로 울어보지 못한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러곤 알았지요. 죽은 내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전하는구나 하구요... (참여자2)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고를 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어휴, 그 새끼 허필 왜 거기서 죽었지!! 거기서 안 죽었으면 되는데 왜 해필... 남한테 욕을 먹기가 싫더라구요. 이사 온 놈이 동네 이미지만 괜히 흉흉하게 만드는 것 같구... (참여자2)

다. 생존자에게 찾아오는 번뇌

- 체면을 중시하는 마을에서 '자식체면을 깎은 죄책감'에 사로잡힘
-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지만, 또다시 '살아갈 두려움'에 직면

원망은 남기지 말아야지.... 원망까지 다 안고 간다면은 음... 자식들이 죽어서도 안 뵙니다, 진짜. 제사도 안 지내요. 요즘 뭐 제사지내는 사람이 누가, 몇 집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죽은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아마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좁아서 말이 금방 돌아요. 괜히 자식들 동네 사람들에게 욕 매기고... 자식들이 뭘 잘 못해서 어미가 자살하려고 그랬나 소문나고... 속상하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자식들에게 그게 미안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착한 자식들 욕 매기는 게 죄스럽지요. 아직까지도 말이 돌아다녀요. 그럼 괜스레 미안해져요. (참여자3)

며칠 큰 아들네 집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들어오는데 저런 나무고 산이고 동네 집이고 보니까 이상한 게,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구요. 이 세상을 이제 끝낼려고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저 산을 내가 다시 보는구나. 저 집을 내가 다시 보는구나... 감격스럽 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말하자면 슬픈 마음으로 보이는 거지. 내가 살아서 감격스럽다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저 산을 다시 보는구나, 저 집이 다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갈 두려운 마음으로 슬픈 거지요.

(참

여자1)

깨어났을 때, 처음엔 다 반갑지 뭘....(웃음) 이불도 반갑고, 키우던 화분도 반갑고 이웃도 반갑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라고 아들에게 요일을 물어봤지.... 아휴 근데, 우리 아들이 많이 놀랐지....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그랬다구... 놀래가지고 그러는 게 마음이 안 됐어... 놀래구 말구.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다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또 그게 근심이지. 두려운 거지... (참여자3)

5.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

가. 삶과 죽음은 신만이 주관함

-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음
- '죽음은 하늘의 부름에 순종하는 숭고한 뜻'이기에 살아가야 하는 것 받아들임

농촌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뭐.. 일 같은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게 힘드니까 생명 줄을 끊는 거지요. 자식들한테,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그냥 그러는거지요... 내 의지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죽을 때까지 살이라고 내가 그래요... 인제는 뭐든 삶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뜻대로 되는 걸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꼈잖아요. 이제 그냥 주어진 삶.. 그냥 사는거지... (참여자1)

순간적으로 저이가 욱, 막 속 썩이고 때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에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 내가 왜 안 죽고 사느냐고 내가 왜 안 죽고 사느냐고 우면 때는 땅바닥을 막 치고 대가리도 갖다 별 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렇게 죽을래는 것도 팔잖아봐,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죽고 살지.(참여자4)

맘대로 죽는 게 아니야. 총알이 날라 와도 총알을 날을 피해간다는데... 뭐 그런 게 팔자라구... 아무나 죽는 게 아니다. 죽는 것도 팔자야... 목매달아 죽는 것도 팔자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팔자고 코 박고 뒤진다는 것도 팔자고... (참여자5)

인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웃음) 목숨이라는 게 하늘에서 뜻한 목숨이라서... 이제 와라 이러면 그때 가야지... (참여자3)

나. 나의 업보로 떠안음

- 스스로 '인간복을 본래 타고나지 못한 숙명'으로 인식
- '조상 죄를 안고 살아갈 업'을 이어받아 살아갈 팔자
-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효성을 다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받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며 위로'

시집 올 때부터 시부모 없이 시댁식구들 밑에서 눈칫밥 먹어가며 그런 설움도...고생도 없어요. 남편 일찍 죽어 자식들 넷 다 혼자 키우고... 결혼시켜 다 지 살림 알아서 사는가 싶더니, 큰 아들은 사업 망해서 이렇게 돼... 참 팔자 세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많은가... 이 동네 에서 나 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고생 팔자는 죽을 때까지 이런가 봐요. 죽을래도 죽어 지지도 않고... 억지론 못하는가 봐요. 본래 타고 난 게 이런 걸...어쩌겠어요. (참여자1)

아주 나같이 인간 복 못 탄 사람 없어. 시집 올 때부터 이 집은 아무 것도 없는 집 안에,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럽고... 이 양반 할아버지, 부모부터 집 안이 본래 복잡하게 꼬여 있더라구... 이거에 내 팔자도 타격이 있는 거라구. 난 돈에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여. 인간 복을 못 탄 거지. 사람이 사람을...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여. 남편이구 자식이구 시어머니구 간에... 본래 인간 복을 못 타가지고 그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내 인생을 버려놔어. (참여자4)

우리 할아버지가 남 망가트리고 맞아 죽었으니까 그걸 지금 자식들, 여편네 죽도록 뒷바라지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 인생으로 빚 갚는다 생각하고 아주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빚 갚느라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 이제 한탄 안 해... 내가 받아야 하는 거라면 받아야지. 그 원혼이 한이 깊어 우리 집안에 와서 괴롭히는구나.... 내가 시방 그래서 아버지 화장해줄라고 했는데, 이장이 시청에 알아 봐 주겠다고 했어. 이게 내 남은 생애 해야 할 숙제야... (참여자5)

저쪽에 이장 할머니가 그래. 아유 용희(가칭) 엄마는 모진 시집살이하며 시아버님한테 잘해서 복 받아지고 애들이 잘 풀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허더라고....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센가 이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았어도... 자식 잘 된걸 보면 위로 받지... (참여자3)

다. 나에게 힘을 주는 마을 자원들

- '처지를 알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얻음
- '신앙에 의지하며 극복'해 나감

보건진료소장님이 참 좋아. 인정도 많고... 많이 도와줬어요. 허리가, 허리가 그렇게 아주 아파서 입원을 한동안 했었고.... 또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부러졌었어요(웃음)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하고 왔을 때 금번 씻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씻겨주고 그랬어요. 밥도 해다 주고 뭐 먹을 과일도 사다 주고, 또 목욕 못할 적엔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런 양반이 어딴어요. 공무원이 뭐 냄새가 나거나 못 씻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다른 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어딴어요, 없죠... (참여자1)

동네 사람들은 다 날 위로하지. 위로해주고.... 내가 (기침) 집구석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도 나가면 내가 노래도 하고 화투도 치고 내가 활발하게 놀지, 그렇게 나 지지하게 놀고 그러지 않거든....그러니까는 다 내 맘들은 알지. 할아버지도 겪어봐도 알고, 뭐든지 하면 몰러? 그러니까 위로 해주고 그러지. 근데 병들기 전에는 술주정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병이 드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구. (참여자4)

내가 농사지을 돈도 없는데, 노령연금인가, 기초연금인가..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나오는 걸로 농사지어서 나 찾아 먹을 것은 나오더라구... 쌀도 사가지고 오고 씨앗 값도 사고... (참여자5)

종교... 종교를 가지는 것은 뭐, 불교를 가든, 뭐뭐 무슨 종교를 갖던 간에 종교에 빠져보자. 심취해 보자. 성당을 가든,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던지 내가 꼭 죽어야 될 건지. 한 번만 이래도 단 하루래도 단 1초래도 생각 한 번 해보고.... 사는 방법을, 죽지 않은 방법을 위한 연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받지 않아요. 죽도록 힘들 때면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2)

라. 버티며 살아갈 용기를 내봄

-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한 삶의 힘겨움' 경험
- '자살충동은 또 일어나지만, 두려운 재시도'
- 자살충동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며 '사는 데까지 살아내야 겠다는 삶의 굳은 다짐'

잊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게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 속상한 일들 있으면은 아... 이거 뭐 (혀 차는 소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또 그런 생각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참여자2)

살아야 한다기보다 죽지도 못하고 또 살아났으니 그 다음에는 죽는 생각을 못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는 죽는 결심을 못했어요. 죽는 결심을 못하고 그냥 안 죽어지니까 살았죠. 그냥.... 죽지 못해서 또 살아났으니 다시 죽는다는 결심은 못하겠더라구요. 다시 죽는다는 결심은 못해. 인제는 용기가 안 나요. 안 되더라구요. (참여자1)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슬프지요. 그래도 인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았으니까 애들하고 살아가지 죽을래도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까지 살아가지 그런 마음으로 살죠. (참여자1)

다시 깨어났을 때 살고 싶지는 않았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죽고 그것들 내가 가만 안 두고 싶었어. 억울하지... 시방도 그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 동네에서 내가 혼자 사니까 옆집 아주머니도 동네 이장도 반찬을 만들면 갖다 주려고 해. 근데, 내가 도움을 받으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의존심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밥을 해 먹잖아. 고추도 내가 담가놔지, 마늘도 시방 까 놔어. 마늘도 장아찌 담글라고... 지난번 내가 담군 김치는 봤지? 그리고 남들이 자꾸 뭐..... 혼자 산다고... (참여자5)

6. 짊어질 멍에와 잡은 희망으로 아슬아슬 살아감

가. 짊어져야 할 짐

- 나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가짐
- '부양하고 수발해야 할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
- '죽음으로 떠나간 가족들에 대한 상처와 죄책감'은 무덤까지 가져야 가야 할 깊은 짐

죽을라고 해도 억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이젠 사는 데까지 살다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식들한테 신세 안지고 깨끗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자식들 생각하면 그 생각만 간절하게 들어가요. (참여자1)

대, 소변도 못 가려... 아,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정신이 없어서 찾아 먹지도 못하고 아들네 딸네집도 못 찾아가고 옛날에 한 거는 아는데 지금 새로 댕겨 사는 거는 어제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가니까, 그이가 대변 대소변 못가리냐고 그러다라구... 내가 그렇다고 하니, 그러더라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근데, 우리 큰 아들이 노발대발... 자기 망신시킨다고... 이왕 벌어졌으니까 내가 저 모르게 또 갈라고 그래. 내가 엿저녁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하고.... 그렇게 지 뒷바라지 해줬어도 그 지랄이나 하고... 아 이마를 치면서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고 이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여. 이랬거나 저랬거나 또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가서 알아봐야지...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게 다 왔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이제 다 왔으니까... 내가 만날 그러는 거여. 나 하나 죽으면 당신은 그 때부터 그지여. (참여자4)

5월은 저한테 진짜 많은 의미가 있어요. 힘든... 힘든 계절이에요. 뭐 메이퀸 뭐 어 썬 구 그러지만..... 봄의 계절, 여신의 계절, 저한테는 아니고...., 뭐 거의, 거의 잊혀져 가는데... 잊혀져 가는데 뭐 그렇게 빨리 안 잊혀지네... 그냥 일로 잊을려고 노력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치만 죽을 때에 잊혀지지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참여자2)

나. 살아갈 희망 붙들기

- 자신을 향한 '좋은 죽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감
- '희망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바람
- 이제는 가족 이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베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람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있지요? 병이나 들어서 진짜 오래오래 죽지도 않고 긴 병 들어서 진짜 자식들 괴롭히지나 않을까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끝까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뜻대로 안 되죠. 뭐든지.... 지금도 힘들 때면 죽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요. 그런데, 자식들 생각하며... 억지로 죽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알고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다가 진짜 깨끗이 살다 편하게 죽으면 좋은데, 진짜 병이나 들어서 오래오래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쩌나, 그런 게 걱정 되죠 그런 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참여자3)

앞으로 자식들이나 잘 되는 소망이지... 뭐 다른 거 뭐...인제 내가 나이 먹어서 인제 나를 위해서 뭐 인제는 내 인생은 끝난.. 숨은 붙었지만... 끝난 건데 뭘 이제는 뭐.. 이제는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뭐 우리막내 장가나 가고 애들이나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살았으면 그것뿐이지.. 그 이상은 바랄 것도 없어요. 건강하고.. 아주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참여자1)

나머지 돈은 내가 한 천 만원인가? 저기다 저 복지과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 여기서 죽거든 화장해서 달라고 할라고... 그리고 보호자 찾지 말아라, 보호자 필요 없다고 써 놓으려고... 누 구도 그리고 내가 시방 우리 아버지를 화장해서 치워야 한다고 별초도 안한다고 일부러... 새끼들 별초도 안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 새끼들이 내가 죽어도 지내겠어? 모아 놓은 돈 많진 않아요. 다 없애서... 나 필요한 만큼 쓰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고 가면 되는 거야. (참여자5)

성당 계통에서 하는 고아원이 있어요. 한 백 한 이십명 정도 되는데 개들한테 뭐 매달 계란도 사서 보내고... 죽을 때 그거 못 싸가지고 가요. 아 지가 누울 자리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참여자2)

다. 자연을 의지하며 다시 부여잡은 삶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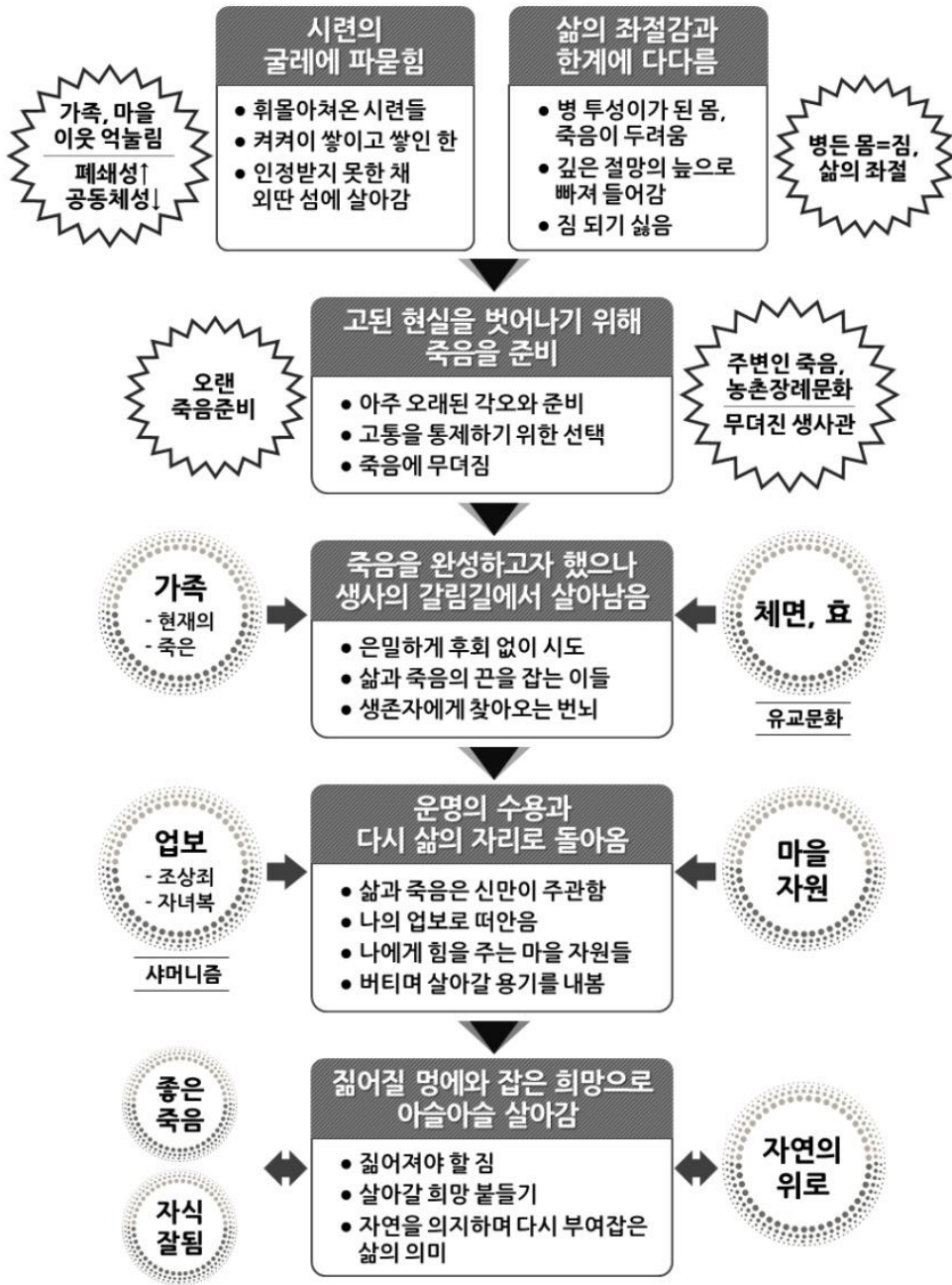
- 자신들을 산전수전의 시련을 견뎌낸 '진정한 삶의 승리자'로 격려
- '자신과 생명의 존귀함'을 알아감
-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정직과 보람을 주는 '자연의 위로와 선물에 의지'하여 살아감
- '농사와 소소한 일은 삶의 활력'이 되어 이를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함

내가 참고 사는 거 생각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해도 너무 장한거여. 내 자량이 아니라 너무너무 참고 살은 게 장한 거여.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어디 숨어 있으면 작대기 끌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엄마 감춘 사람 내놓으라고 이려고 끌고 돌아다니고 그랬어. 별 짓을 다 하고 살았어. 아이고 말도 못하지 뭐. 진짜 내가 인간승리 헛거야... (참여자4)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니까는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사는 거지.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이려고 사는 거지. 이렇게 속은 썩이고 이래도 첫 째는 그거지 뭐, 별 거 없지 뭐. 내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지, 누구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참여자4)

행복하다... 그거는 땅은 준 것 만큼 준다는 것을... 알면 돼. 땅은 준거만큼 사람한테 보태준다고.... 그래서 땅이 좋아. 씨를 하나 뿌리고 거름을 주니까 감자 다섯 개, 여섯 개 가 나온단 말야? 그런 의미가 있어. 땅은 정직하고 거짓말 안하고... 그대로 주니까... 그럴 때가 보람되고 행복하고... 그래 가지고 맥주도 또 한잔 사 먹고...(웃음) (참여자5)

일을 하면은 날은 더워도 땀은 많이 나와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요만, 요만해진 게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고 허는 걸 보면 아, 비료를 좀 줘야겠다. 사람도 어... 살아가면서 비료를, 그 비료 같은 영양소를 먹어야지 이게 건강하고 남들이 말하는 면역력도 길러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농사도 짓고 또 여기 나와서 아내 일도 거들어 주구... 제가 버스타고 나와요. 그냥 와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아, 지금쯤 가면은 바쁘겠구나. 지금쯤 가면은 손님들이 와서 먹은 찬이 그대로 널려있겠구나. 치워주고. 그러면 뭐 고맙게 생각을 허든 안 하든. 내 일이니까..... 이러면 하루가 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잊혀 저요. (참여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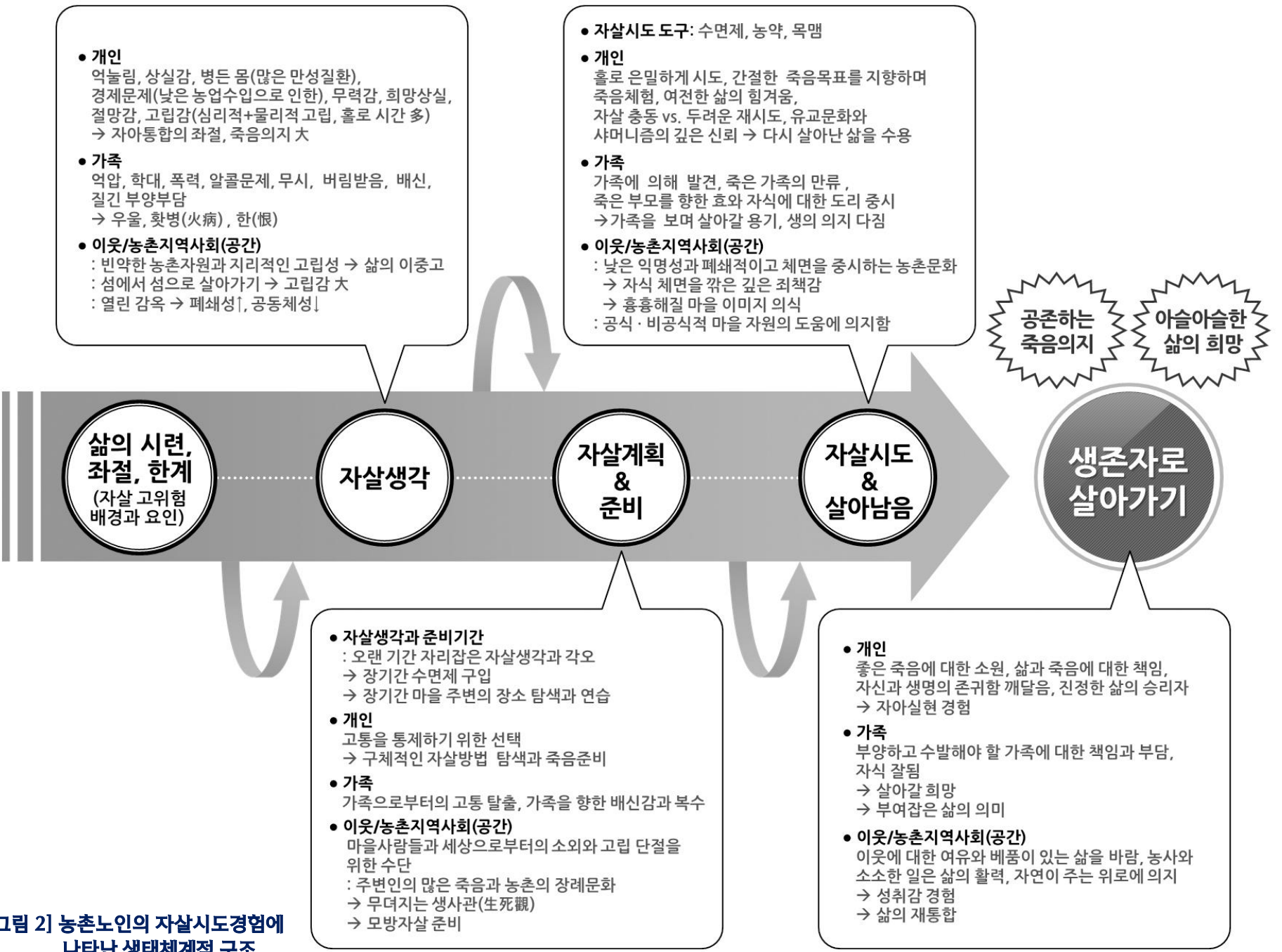


[그림 1]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에

나타난 일반적 구조도

3. 농촌노인 자살시도경험의 일반적 구조

- 농촌노인의 삶의 죽음의 의지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온 외부압력의 충돌로 인해 생(生)과 사(死)의 갈등에서 오는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 자살시도가 있었음.
- 그러나 이들은 생존하여 다시 살아갈 극복의 의지를 다지지만 제자리인 고된 현실 속에서 약한 삶의 의지를 지닌 채, 여전히 죽음의 의지가 공존하며 불안정한 회복의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귀결됨.



[그림 2]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에 나타난 생태체계적 구조

V. 결론 및 제언

1. 농촌노인의 자살시도경험에 대한 논의

❖ [시련의 굴레에 파묻힘]

- : 농촌노인들의 생애를 둘러싸고 자살을 하게 되기까지의 억압적인 가부장적인 배경과 오랫동안 내재된 자살위험요인
- : 농촌노인들이 살아온 생애기간 동안 축적된 복합적인 생태체계적인 요소들의 발견 → 가족과 외부로부터의 삶의 고통, 낮은 농업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상실로 인한 외상, 알코올 문제와 가정폭력, 친족,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폐쇄성과 공동체성 붕괴, 질긴 부양부담, 배신과 상처로 인한 깊은 화(火)와 한(恨)

❖ [삶의 좌절감과 한계에 다다름]

- : 농촌노인들이 자살생각과 계획, 준비를 하게 되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자살요인
- : 열악한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 문제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경제부담, 부정적인 노화에 대한 수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농촌지역에 살아가는 삶의 이중고와 삶에 대한 무기력과 무망감, 좌절감

❖ [고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함]

- :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한 과정에 대한 경험
- : 아주 오래된 각오와 준비 기간 속에서 구체적인 자살방법의 탐색과 준비
- : 농촌노인들이 경험한 주변인 죽음과 장례문화는 자살생각은 물론 구체적인 모방자살까지 이어짐.
- :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음주문제는 자살 고위험 요인으로 발견

❖ [죽음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음]

- :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철저히 은밀하게 단행
- : 자살시도 후, 농촌노인들은 폐쇄적이고 효와 체면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 속에 깊은 죄책감과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

❖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용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옴>과 [짊어질 멍에와 잡은 희망으로 아슬아슬 살아감]

- : 다시 살아난 자신들의 삶을 조상이 지은 죄와 짊어질 업보로 받아들이는 강한 샤머니즘 숭배
- : 자신의 죽음과 가족부양부담의 책임을 가지고 여전히 죽음의 의지가 공존한 채, 불안정한 회복의 과정 경험
- : 좋은 죽음(자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과 자식 잘됨을 희망하며, 자연이 주는 위로에 의지하여 삶의 재통합

2. 연구의 함의

- ✓ 농촌은 산업화로 인해 공동체 붕괴, 끈끈한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노인의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낳는 역기능 문제, 이주민에 대한 토착민의 배척과 소외문제는 또 하나의 고립으로 인한 자살위험
 - : 농촌지역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 되어가는 공동체 문화와 자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토착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개입 필요**
 - : 마을이장, 부녀회장, 경로회장 등의 토착자원 활용한 자살고위험군 사례발굴과 연계방안, 지역주민 유대감 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 필요
- ✓ 후기노인의 연령단계까지 이른 **노화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 만성적인 신체질환은 물론 우울과 핫병(火病) 등의 복합적인 정신적인 문제와 병원비, 노후준비 부족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 : 자신들의 노화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통해 삶을 재통합, 우울과 핫병,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한 개입 절실함 시사
 - : **열악한 농촌복지자원 실정을 고려했을 때, '리'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 진료소의 활용방안과 기능강화 고려**

- ✓ 농촌노인들은 가족이나 이웃 간의 갈등,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나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부재, 도움요청을 어려워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농촌문화**
 - : 농촌노인들의 자살위험의 요인들은 만성화 수준으로 축적, 자살문제가 발생하여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처음시도와 재시도)
 - : 농촌지역의 자원열악성과 자살관련 문제들이 은폐되는 점을 고려하여 낙인감 없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입할 **서비스 체계 개발**

- ✓ 농촌노인의 음주문제와 음주관련 가족환경의 문제가 자살원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 고려
 - : **깊숙이 뿌리 박혀있는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

- ✓ 농촌노인의 심각한 자살문제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자살예방정책
 - : **자원의 열악성과 낮은 익명성, 체면문화가 강한 농촌지역사회의 이해에 기반, 불안정한 회복을 고려한 예방, 위기대응, 사후개입체계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와 지원서비스, 인력투입방안 필요**

- ✓ 농촌노인의 자살시도 방법에 나타난 **농약 및 수면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규제와 관리 방안 마련**
- ✓ 공동체 문화가 강한 농촌의 경우, 가족은 물론 이웃의 누군가가 자살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민감성**
- ✓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병,의원 및 시내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성 확보 및 여가지원정책 필요**
 - : 면사무소 자치센터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지원, 의료취약지역인 '리'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보건과 여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고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